

이삭줍기는 줍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문 : 롯기 2장 14~16절 / 레위기 19:9~10

(롯 2: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 2:15)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롯 2: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레 19: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 19: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본문 묵상을 위한 질문

1.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금요일기도회 첫날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삭줍기**라고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너무 일찍 삼혜인을 터뜨리는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2. 이삭줍기와 관련해서 인상깊게 떠오르는 사람은 롯입니다. 롯은 몰락한 집에 남아 있던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다른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거나 떠나지 않았고 **그 비운의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먹고살기 위해서 이삭줍기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일이 그녀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의 살펴보십시오.
3. 실은 처음에 코로나 이삭줍기를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단순히 롯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활력 좋은 롯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여러 가지로 돕고 보살피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4. 보아스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력하다고 할찌라도 그의 능력은 롯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5. **이삭줍기는 무언가를 줍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삭줍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두어 들일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일부러라도 거두려는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흘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은 빈 자리를 보면서 묻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 함께 하는 기도제목

1. 코로나 이삭줍기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소서. 큰일을 이루는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2. 이삭줍기를 위해서는 먼저 비워내고 흘려버리는 일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 삶에도 채워야 할 부분과 함께 비워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비울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소서.